

보도시점 2026. 6. 10.(수) 조간
2026. 6. 9.(화) 12:00

배포 2026. 6. 9.(화)

“의료혁신의 주인공은 국민”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 본격 가동

-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 구성 완료 -
- 6월 한 달간 속의 이어 지역·필수의료 소생 방안 논의(7.4.~7.5.) -
-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 통해 질의응답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이용자의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과제를 맡게 된다.

<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 >

- (의제 선정)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26.4.30.))
- (세부 의제) ①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등, ②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③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이에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의 현황, 역대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을 시작으로, 핵심 논의 주제와 관련된 쟁점 등에 대한 자료집 및 강의 등을 통해 자가 숙의를 이어 나가게 된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약 한 달간의 자가 숙의 기간이 지나면,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민패널들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심층 토론 후, 시민 숙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00인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참여하여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 라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국민 모두의 의료’) 포스터

담당 부서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044-202-1880)
		담당자	사무관	이종민 (044-202-1883)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 국민 모두의 의료



의료혁신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료혁신
아이디어 제안



시민패널
공론화



위원회 활동
소식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cinnovation.co.kr>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